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and rows for various TV programs like '20 채널A 뉴스 특보', '20 골든 타임', etc.

“제 나이에 딱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SBS 월화극 ‘유혹’ 유세영 역 최지우



SBS 월화극 ‘유혹’에서 가장 시선을 잡아끄는 존재는 극중 증권기업 대표인 유세영이다. 차가운 다이아몬드 같았던 유세영이 운명의 남자인 차석훈을 만나면서 내면에 숨겨왔던 사랑스러움을 조금씩 꺼내놓는 모습은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유세영과 이 배역을 연기하는 최지우(39·사진)는 같은 연배다. 화려한 외모 때문에 처음에는 주변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도 비슷하다.

“아마 유세영이라는 역할을 좀 더 어릴 때 맡았다더라면 지금 만큼 그 역에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유세영은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딱 맞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유혹’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지우는 “개인적으로 유세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좋다”며 애정을 표현했다.

최지우는 “유세영은 순수하고 귀엽다”면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한 ‘철의 여인’이지만 아플 수 없이 자기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서는 한없이 여리게 변한다”고 설명했다.

유세영은 극중 부부였던 차석훈(권상우 분)·나홍주(박하선)가 서로를 한없이 의심하고 결국 갈라서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유세영과 차석훈이 아무리 운명이었다고 해도 현실의 돌보기를 들이댔을 때 둘의 만남을 마냥 미화할 수는 없다.

최지우는 “물론 세영을 응원하는 시청자도 있고 지탄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저는 세영이 차석훈을 만나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공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일할 때는 일에 몰입하지만 여자로서 남자에게 한없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면서 “사랑이란 감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유혹’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제쳐두더라도 극중 유세영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차림새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낳고 있다.

“전작인 ‘수상한 가정부’에서 워낙 단벌로 나와서 제 스타일 리스트가 이를 간 것 같다”면서 농담을 던진 최지우는 “그래도 극 중에서 너무 과한 옷차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지우는 이어 “유세영이 가진 절제미도 있어서 일할 때와 차석훈을 만날 때 옷차림에 차이는 있다”면서 “유세영이 차석훈을 만날 때는 여자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옷차림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부터 방송된 드라마는 이제 정확한 절반을 넘겨 주고 있다. 지난 10회까지의 시청률은 10년 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SBS ‘천국의 계단’의 재회커플이 아침차게 재회한 작품의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

최지우와 권상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서로 스스롭없이 장난치면서 막역한 사이임을 과시했지만 극중 둘의 화학작용은

다수의 시청자들을 반하게 만들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지우는 남의 절반에 대해 끝까지 응원을 부탁했다. “남은 10회에서는 세영이 어떻게 사랑을 지켜나가는지 봐주세요. 물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을 지켜가는 세영의 방식을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최자♥설리 열애 인정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설리 그룹 탈퇴 논란 “사실무근”

열애설에 휩싸인 다이나믹듀오의 최자(본명 최재호·34·사진 왼쪽)와 에프엑스의 설리(본명 최진라·20)가 연인 사이라고 밝혔다.

최자의 소속사 아메바컨텐츠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사이”라고 애둘러 교제설을 인정했다.

이날 한 인터넷 매체는 두 사람이 남산에서 데이트한 뒤 남산 자동차극장을 찾아 설리가 출연한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함께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둘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불거졌으나 당시 양 소속사는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자가 분실한 지갑에 담긴 둘의 스티커 사진이 지난 6월 온라인에 공개되고, 최근에도 둘의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측근의 SNS에 올라와 열애설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최자는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상황으로 인해 계속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설리)에게 저와의 관계가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서로 호감을 갖고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설리는 지난해 10월 소속사를 통해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당분간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설리의 그룹 탈퇴 의혹이 함께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장범준 솔로 ‘어려운 여자’ 음원 차트 올킬

앨범 수록곡 상위권에 ‘출세우기’



‘버스커버스커’의 보컬 장범준(사진)이 발표한 솔로 정규 1집의 타이틀곡 ‘어려운 여자’가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19일 0시 음원이 공개된 앨범의 타이틀곡 ‘어려운 여자’는 발매와 함께 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 소리바다,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올레뮤직, 모기3 등 국내 9개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또 대부분 차트의 최상위권을 앨범 수록곡으로 채우는 이른바 ‘출세우기’ 양상도 보였다.

타이틀곡 ‘어려운 여자’는 감미로운 발라드와 밴드 스타일의 연주를 사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가사가 어우러지는 신나는 느낌을 준다.

앞서 장범준은 ‘버스커버스커’ 팬카페에 게재한 글을 통해 “특별히 대해 ‘특별스티브’를 상상하면서 만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범준이 ‘버스커버스커’로 ‘슈퍼스타K’에 참여하기 전 거리공연(버스킹)하던 시절에 함께 활동하던 멤버들이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한편 장범준은 앨범 발매와 함께 내달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흥대 에스24무브스에서 총 8회에 걸쳐 주말마다 클럽 공연을 열 예정이다. /연남뉴스

EBS

Table of EBS program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2:00 EBS 정오 뉴스, etc.

EBS플러스1

Table of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국어 I), (국어 II), <영어독해의 기본>, etc.

EBS플러스2

Table of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3년 EBS어류방학생활,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25일 癸亥)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36, 37, 38, 39, 40, 41 years old with corresponding zodiac signs and advice.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42, 43, 44, 45, 46, 47 years old with corresponding zodiac signs and advice.